

Program

천년만세 변주곡

정악 가야금 : 정하린 25현 가야금 : 김미나·전민경

화사한 느낌의 천년만세 중에서 계면가락도드리와 양청도드리를 가야금 삼중주로 변주한 곡이다.

저음을 담당하는 파트는 정악가야금으로 연주하고 25현 가야금 두대가 위에서 변주한다.

꽃잎 인연 도종환 시

25현 가야금 : 안숙현·한지우·조설리

도종환의 詩 '꽃잎 인연'을 읽은 감흥을 25현 가야금 삼중주곡으로 작곡한 곡으로 3장으로

구성된 곡이다.

1장 그리움 2장 흩어지는 꽃잎 3장 애가

몸 끝을 스치고 간 이는 몇이었을까 마음을 흔들고 간 이는 몇이었을까
저녁하늘과 만나고 간 거리가 수 만큼이었을까 앞강에 흔들리던 보름달 수 만큼이었을까

가지 끝에 모여와 주는 오늘 저 수천 개 꽃잎도
때가 되면 비 오고 바람 불어 속절없이 흩어지리

살아 있는 동안은 바람 불어 언제나 쓸쓸하고
사람과 사람끼리 만나고 헤어지는 일들도 빗발과 꽃나무들 만나고 헤어지는 일과 같으리

섬진강

해금 : 최유리 18현 가야금 : 이연화

그림같이 펼쳐지는 섬진강의 모습을 표현한 곡으로

정악풍의 그윽한 가락으로 시작하여 산조풍의 가락으로 끝마친다.

사랑은 깊은 하늘 김영랑 시

노래 : 최윤영 대금 : 손한별 거문고 : 전현진

사랑은 깊은 하늘 맹세는 가볍기 흰 구름

그 구름 사라진다 서럽지는 않으나 그 하늘 큰 조화를 못믿지는 않으나

사랑은 깊은 하늘 맹세는 흰 구름